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 월 24 일에 Sunday School VBS 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식사 및 진행과
관련해서 Volunteer 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2017 년 5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변명균 집사/시편 104:24-35
 이번 주 친교: 윤미경/황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하영미/홍영순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5월 28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2 장(통 26 장) 다함께 “만유의 주 앞에”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68:1-10, 32-35	백희진 집사
찬양(Choir)	“주 안에서 늘 담대하라”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5:16-26 인도자
설교 (Sermon)	“참된 영광”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310 장(통 410 장) 다함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5. 21. 주일 설교 요약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갈 5:16-26)

든든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기 위해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매이거나 율법의 굴레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구별은 흔히 말하는 육체와 정신의 구별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바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고 악한 것을 욕망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육체”란 죄된 본성, 거듭나기 이전의 옛 생명의 본성과 소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삶을 말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서 행복하려고, 의로우려고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도 더 소망한다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처음부터 악하고 더러운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열거한 육체의 일들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떠나 사랑만을 좇으면 간음이요 분당입니다. 희락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은 희락은 술취함과 방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없는 화평은 당짓기입니다. 믿음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믿음은 이상숭배와 주술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알고 그를 떠나지 않을 때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삶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감격스럽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고 힘이 있어 당연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래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을 때 뿐 아니라 어렵고 멀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오랫동안 항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함당하지 않은 것, 거리끼는 것, 주 앞에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버리고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에는 붙어있으나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일은 무슨 요령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판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을 뿐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도록 순종하지 않았습니.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은혜가 나를 살린 것을 인정하고, 말씀이 내 생각보다 지혜로운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다 이뤄지는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저 원망스러우며, 기도와 예배가 공허히 흘러진다면, 금방 목말라 죽을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긋지긋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오래 거하면 열매는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열립니다.